

# 바다의 무법자 해적, 완전소탕은 요원한가?

예나 지금이나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떤 나라의 군함이라도 해적선에 대해서는 나포와 함께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해적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역 인접국들이 해적퇴치를 위해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적피해건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해적들의 약탈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집자 주).

## ▶ 말라카 주변해역 해적 활동무대

2004년 세계 해적사고 325건 중 147건(45%)이 말라카 주변해역에서 발생하였으며, 선박과 선원을 억류한 뒤 몸값을 요구하는 사고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말라카해협은 길이 약 900km, 폭 65~249km, 평균수심 25~27m의 지리적여건의 해협으로 매년 5만척 이상의 각종 상선이 통과하는 주요 해상항로이다.

더구나 인도네시아 말라카해협과 남중국해 등의 지역은 우리나라 수입원유의 99%와 수출화물 35%가 운송되고 있는 길목으로서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 ▶ 해적 피해사고 건수는 줄어

전세계에서 발생한 해적피해 사례는 지난 2000년 469건을 기록한뒤 2001년 335건으로 줄었으나, 2002년 370건에서 2003년에는 다시 445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난 2004년에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확산과 국제해사기구(IMO)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그리고 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역 인접국들의 수색활동을 강화함으로써 325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말라카 및 싱가포르해협 등 말라카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해적피해사례는 크게 줄지 않았으며,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확대

되는 등 해적들의 활동무대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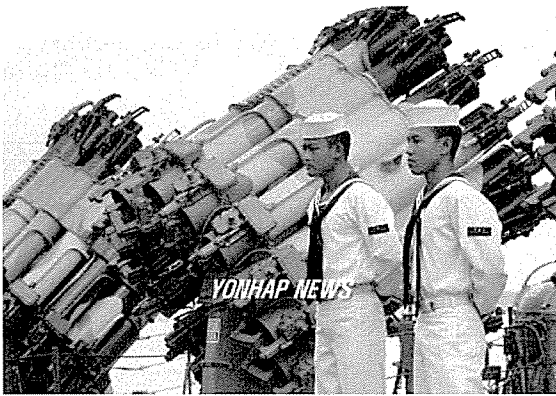
## ▶ 해적 약탈행위 갈수록 흉포화

해적소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10여건의 해적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해적들의 약탈행위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고, 그 수법도 더욱 잔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해적피해의 당사자가 해운업계라는 점에서 세계해운업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에 발생한 전세계 해적피해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질극이 148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유괴가 86건, 살인 및 실종이 60건(각각 30건), 부상 59건, 협박 34건, 폭행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 ▶ ASF, 해적퇴치 강화대책 촉구

이처럼 해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아시아역 선주대표들은 지난 5월 호주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에서 말라카/싱가포르해협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해적행위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하였다. 최근 유조선과 예인선 및 바지선들이 최근 공격을 받았으며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다른 선원들이 총과 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동안 사관들이 납치되었다. 거액의 몸값이 사관들의 안전 및 석방에 대한 대가로 요구되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유조선들에 대한 공격은 좌초 또는 광범위한 기름유출을 함으로서 해양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결과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주변국들이 해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좀더 강경한 조치들을 채택해 주도록 촉구하였다. 이와함께 연안국들이 해협들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적들을 맹추격하는 것을 포함하는 합동 초계활동 시행을 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 ▶ 울들어서도 해적피해 여전

해적들의 약탈행위로 인해 해운업계의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말라카해협에서의 인질 몸값을 노린 선원납치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말라카해협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쓰나미(Tsunami)' 이후 두달 동안 어떤 종류의 해적관련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년 2월28일 이후부터 해적공격이 재발하기 시작했다.

금년에 발생한 해적피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6월14일 ... 말레이시아 북쪽 말라카 해협에서 말레이시아 클랑항에서 디젤유 등을 싣고 미얀마로 항행 중이던 말레이시아 국적 유조선 1척이 무장해적들에게 납포된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발생 후 탈출한 선원 1명에 의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말레이시아 군경이 유조선을 추적하였으며, 해적들은

선원들을 인질로 12시간여 군경과 대치하였으나, 결국 해적들은 투항했다. 선원 전원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 선박에 한국인 선원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현지 영사를 통해 확인됐다.

○ 4월9일 ... 싱가포르 유조선 세이마루호에 칼을 든 해적 10여명이 보트를 타고 침입하여 5천달러를 강탈하고 도주했다. 4월1일에는 파나마선적 화물선 오션 프린스호에 총으로 무장한 3인조 해상강도 난입, 금고의 현금을 강탈하고 도주했다.

○ 3월20일 ... 인도네시아 Balikpapan 내항 정박지에서 투묘해 있는 산적화물선에 여러 명의 강도가 침입, 보스 스토아를 부수고 있는 것을 선원들이 발견하고 경고를 하자 달아났다. 강도들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동 건은 항만당국에 보고됐다.

○ 3월19일 ... 방글라데시 Chittagong 'B' 정박지에 정박해 있는 일반화물선에 장칼로 무장한 강도들이 선미쪽으로 침입하여 선용품을 훔쳐 달아났다. 항만당국에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응대를 받지 못했다.

○ 3월15일 ... 소말리아 해역에서 항해하고 있는 일반화물선을 총으로 무장한 3명의 해적이 흰색 선체의 고속보트를 타고 추적해 오면서 총기를 난사했다. 선들이 경적을 울리며 소화호스를 작동시키고 선박의 속력을 증가시키며 지그재그로 운항을 하자 30분뒤 해적들이 공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날 또 아덴만에서 항해하고 있는 RORO 선박에 각각 4명의 사람을 태운 3척의 고속보트가 접근하여 침입을 시도했다. 선원들이 소화호스를 작동시키고 경적을 울렸으며, 인근 선박에 동 사항에 대하여 경고하여 알려줘 사고를 모면할 수 있었다. 고속보트 3척중 1척은 노란색 선체를 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척은 갈색이었다.

○ **3월14일** ... 말라카해협에서 부선을 예인하며 항해하고 있는 예선에 3척의 어선을 타고 총기로 무장한 해적들이 침입하여 선장, 기관장 및 3기사를 납치하여 달아났다. IMB PRC가 동 건을 접수 받아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에 통보했으며,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이 순찰선을 급파하여 동 피해 예선/부선을 항구로 에스코트 해왔으나, 인질선원 3명의 행방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 **3월12일** ... 말라카해협 Berhala Island 남동쪽 14마일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는 유조선에 기관총과 로켓추진수류탄(rocket propelled grenades : RPG)으로 무장한 해적들이 침입했다. 해적들은 남아 있는 선원들에게 동 선박의 입항예정지인 Belawan항으로 가지 말라고 위협하고 선장, 기관장을 납치했다. 이들 해적들로부터 인질 몸값요구가 접수된 바 있으나, 인질선원들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3월11일** ... 싱가포르해협에서 항해하고 있던 산적화물선에 3척의 보트가 접근 시도하는 것을 선원들이 발견하여 갑판 작업등을 켜고 경적과 함께 소화호스를 작동시키자 침입을 포기하고 15분 뒤에 돌아갔다.

○ **3월8일** ... 아덴만 예멘 연안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던 2척의 요트에 4명이 타고있는 고속보트 2척이 각각의 요트에 접근해와서 총기를 난사했다. 한쪽 요트의 선원 1명이 총기로 응사하여 해적 1명이 부상을 입자 해적들은 공격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2척의 요트 모두 선체에 총탄 자국 등의 손상을 입었다.

○ **3월7일** ...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항해하고 있는 유조선에 해적이 침입하여 선박장비를 훔쳐갔다. 당시 주변에는 다수의 어선들이 있었다.

○ **3월4일** ... 모로코 Casablanca항의 부두에 접

안해 있는 일반화물선에 20명의 장칼 무장강도들이 침입하는 것을 당직사관이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고 선장이 VHF로 경찰을 호출했다. 경찰이 신속히 선박을 향해 달려오자 강도들은 경찰차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아났다.

○ **3월2일** ... 방글라데시 Chittagong항의 'B'정박지에 투묘해 있는 일반화물선에 총으로 무장한 강도들이 침입했다. 강도들은 선용품을 훔쳐 달아났다. 항만당국과 연안경비청에 신고하였으나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

○ **3월1일** ... 인도네시아 Pulau Laut 항의 Sebuku 정박지에 투묘해 있는 산적화물선에 장칼과 쇠파대기로 무장한 8명의 강도들이 묘쇄공을 통해 침입, 쇠파대로 본선 선원 1명을 구타하여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히고 결박하였으며 천으로 입에 재갈을 물림(gagged). 강도들은 선용품을 훔쳐 보트를 이용하여 도주했다.

○ **2월8일** ... 말라카해협에서 어선을 이용 무장한 4명의 강도가 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예선에 총기를 난사하며 침입하여 통신장비를 고장내고 기관장 다리에 총상을 입혔다. 강도들은 모든 선박서류와 선장과 1항사를 인질로 잡아갔다. 말레이시아 해군 군함이 도착하여 기관장을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로 매듭됐으며, 인질로 잡혀간 선원들의 생사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 **2월24일** ... 베트남 Hon Gai 내항 정박지에 양묘하여 부두접안 준비중에 있는 케미칼 유조선에 강도들이 침입하여 선용품을 훔쳐 달아났다.

○ **2월22일** ... 인도 남서쪽의 Trivandrum 연안 해역에서 원양 해상크레인 부선을 예인하고 있는 예선에 2척의 어선이 접근하여 이 중 한척이 부선에 접안하여 침입한 4명의 강도가 부선 갑판에 있는 선용품을 훔치는 것을 선원들이 발견하고 소집



하자 빈손으로 돌아났다.

○ **2월16일** ... 방글라데시 Chittagong항의 'B' 정박지에 있는 케미칼 유조선에 2척의 보트를 타고 온 무장강도 10명이 장칼로 무장하고 침입했다. 강도들은 당직타수를 체포하여 칼로 위협하며 선용품을 훔치는 도중에 당직사관이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려 선원들을 소집하자 선용품을 갖고 바다로 도주했다.

○ **2월15일** ... 남지나 해상에서 항해 중에 있던 산적화물선에 등화를 켜지 않은 소형선박이 접근하는 것을 선원들이 발견하고 탐조등을 동 선박을 향해 비추자 침로를 바꿔 돌아났다. 같은 날 인도네시아 Adang Bay항의 정박지에 투묘 중이던 산적화물선에 철봉으로 무장한 3명의 강도가 묘쇄공을 통해 침입, 본선 선수 쪽에 있는 창고문을 부수고 선용품과 구멍뚫목을 훔쳤다. 당직타수가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고 선원들을 소집하자 보트를 타고 돌아났다.

○ **2월7일** ... 콜롬비아 Buenaventura항의 내항 3번 정박지에 투묘하고 있는 산적화물선에 2명의 강도가 선수 쪽으로 침입하여 창고문 자물쇠를 부수고 선용품을 훔치는 도중에 선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강도들은 빈손으로 바다로 뛰어들어 돌아났다.

○ **2월6일** ... 인도네시아 Balikpapan항 정박지에 정박하여 STS 작업을 하고 있던 유조선에 강도들이 침입했다. 이에 승선해 있던 경찰들이 강도들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으나 강도들은 2개 구멍뚫목의 고박줄을 잘라 바다로 던지고 강도들도 바다로 뛰어 들어 대기하고 있는 보트에 동 구멍뚫목 2개를 싣고 돌아났다. 경찰들이 일대 해역을 수색하였으나 동 강도들의 체포에는 실패했다.

○ **2월3일** ... 인도네시아 Korta Baru항 정박지

에서 정박중인 산적화물선에 칼로 무장한 강도 6명이 침입, 당직 타수의 머리를 구타하고 결박한데 이어 당직사관이 당직타수를 찾아오라고 보낸 실습생(Cadet)도 결박했다. 이후 강도들이 선수 창고를 열고 선용품을 훔치는 것을 당직사관이 인지하고 경적을 울려 선원들을 소집하자 강도들은 훔친 선박장비들을 갖고 대기하고 있던 등화를 켜지 않은 보트를 타고 돌아났다. 동 선박 선장이 항만당국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 **2월2일** ... 싱가포르 해협을 항해중이던 케미칼 유조선에 총과 칼로 무장한 복면 해적 10명이 침입, 선교 창문을 부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빈손으로 돌아났다. 동 선박 선장이 싱가포르 VTIS에 동 건을 보고하자 해양경찰이 와서 인근 해역을 수색했다. 같은 날 인도 Kandla 정박지에 정박중인 산적화물선에 장칼 무장강도 2명이 선수 쪽으로 침입했으나, 당직사관이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고 선원들을 소집하자 바다로 뛰어들어 대기하고 있던 등화를 켜지 않은 보트를 타고 훔친 선용품을 갖고 도주했다.

○ **1월31일** ... Gulf of Thailand의 베트남 서해 연안에서 항해하고 있던 케미칼 유조선에 총과 장칼로 무장한 3명의 해적이 침입, 선장 침실을 급습하여(raided) 금고에 있는 현금과 선장의 소지품을 갈취했다. 해적들은 선장을 인질로 자신들의 보트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선장의 저항으로 실패하고 이 과정에서 선장이 부상을 입었으며, 해적들은 보트를 이용하여 돌아났다.

○ **1월20일** ... 말레이시아 Sandakan항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던 컨테이너 선박에 2명의 강도가 침입함. 강도들은 갑판에 있는 컨테이너를 부수고 화물을 훔치는 도중에 선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바다로 뛰어들어 대기하고 있던 보트를 타고 돌아났다. 선장이 동 건 보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며, 경찰이 승선하여 조사했다.

○ **1월14일** ... 중국 Nanjing항 정박지에 정박하고 있는 케미칼 유조선에 3명 강도가 침입하여 갑판 창고의 자물쇠(padlock)를 부수고 안전장비를 훔쳤다. 선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자 대기하고 있던 보트를 이용하여 달아났다. 본선 선장은 항만당국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다.

○ **1월11일** ... 자마이카 Kingston 연안에서 항해 중에 있는 유조선에 장칼로 무장한 3명의 무장강도가 선수쪽으로 침입하여 선수창고를 부수고 선용품을 훔치는 것을 선원들이 발견하고 소집하자 바닷물로 뛰어들어 대기하고 있는 보트를 타고 달아났다.

○ **1월7일** ... 인도네시아 Tanjung Priok 정박지의 방파제 밖 3마일거리에 정박하고 있던 일반화물선에 4명의 무장강도가 침입하여 기관 예비품을 훔쳐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달아났다. 동 건은 인도네시아 당국에 신고됐다.

○ **1월6일** ... 방글라데시 Chittagong 외항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는 유조선에 칼로 무장한 7명의 강도가 선미갑판으로 침입했다. 선원들이 소집하여 소화호스 등을 대응하여 강도들을 훔친 선용품을 갖고 고속보트를 이용하여 도주했다.

○ **1월2일** ... Persian Gulf/Arabian Sea에 있는 Hormuz해협에서 항해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박에 총기로 무장한 다수의 강도들이 길이 6내지 8m 정도의 푸른색 고속보트 6척을 타고 컨테이너 선박의 우현 쪽에서 좌현 쪽으로 가로지르며 접근하는 것을 당직사관이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며 선원들을 소집하여 소화호스를 작동시키자 동 선박들은 추적을 해오다 사라졌다. 괴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얼굴에 복면을 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

로 보고됐다.

### ▶ 해운업계 자구책마련에 골몰

이처럼 해적들의 약탈행위로 인한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해운업계에서는 자구책의 일환으로 사립무장호송선(private armed escorts)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적출몰 수역 인접국가들의 수색활동만으로는 해적소탕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예방효과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유 및 가스회사가 말라카해협을 통과하는 예인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에서 사립무장호송선을 활용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예인선과 같이 속도가 느린 선박들은 말라카해협 해적들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동 해협에서의 선원의 몸값을 바라고 행해지는 납치 및 선박의 납포는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보험업자들은 무장호송선을 담보조건의 하나로 주장하기 시작했다.

### ▶ 안전문제는 인접국 정부 책임

말라카해협을 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3개 연안국은 해적퇴지를 위해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무장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해적들을 소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도 사립무장호송선의 활성화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압둘라 아마드 바다위(Abdullah Ahman Badawi) 수상은 사립무장호송선의 시행을 반박하면서 이러한 보안과 안전문제는 인접국 정부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외무부 장관들은 말라카해협의 보안 및 안전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조체제 강화 외에는 달리 예방책이 없는 실정이다. 해적들이 출몰하는 수역이나 항만 또는 정박지의 관할 국가 대부분이 개도국들이니다 빈부격차가 심



하고, 해상치안이 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해적들을 완전 소탕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해양부 해적 대응대책 지속 시행

해양수산부는 말라카해협을 드나드는 우리 상선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적대응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선주협회와 공동으로 본선과 선원들의 행동요령을 숙지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상선대의 해적피해 최근에 거의 자취를 감췄으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본선과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해양부에서는 말라카해협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상고속도로 구축사업에 레이더 등과 같은 실물 75만달러와 기술지원 등으로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말레이시아 해양경찰 합동으로 동 해협에서 해적진압훈련과 합동순찰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 해적방지협정(ReCAAP)의 조속한 발효 지원과 함께 싱가포르 현지에 해양경찰 파견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선주협회와 최근 사고사례 및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해당선사에 통보하는 등 해적퇴치 및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 아시아국가들 공동대응 추진

아시아국가들도 정부차원에서 해적퇴치를 위해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말라카해협 인접국가들은 수차례에 걸쳐 '아시아지역해적방지협력협정' 성안을 위한 국제회의를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 16개국은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법적 구속력을 부과하기 위하여 '아시아해적방지협력협정'을 성안하고, 정부간 해적정보공유센터의 설립과 각국에 전담연락창구의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IMO 해상수송로 안전확보 추진

국제해사기구(IMO)도 해상수송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IMO는 말라카해협 등 주요 해상수송로에서 선박의 안전항행을 확보함으로써 자유로운 세계교역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항행보조시설의 증강, 해상보안 확보, 해적 대응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을 수립중에 있다.

▶ 해적퇴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전문가들은 해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공조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응방안도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전일수 인천대학 동북아물류대학원장은 한국해운신문에 기고한 '해적방지를 위한 국제적 동향과 개선방안'을 통하여 해적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적피해 다발해역 내 국가간 협력체, 즉 해당 국가간 실무자 차원의 정기적인 협의체의 개최, 연락체제 및 공동대응체제의 구축, 수사공조, 해적대응관련 지식과 기능향상 등에 대한 국가간 협력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적행위의 방지 및 진압을 위한 국제수사공조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해적행위를 하고 나면 제3국으로 신속하게 도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해적행위 초기단계에서 국가간 수사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해적행위로 인한 수익을 박탈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제해적행위는 선박의 약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밀수는 물론 테러분자들과 연계되어 다양하게 국제범죄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고, 해적행위는 필연적으로 국제범죄 조직들과 연계되어 해상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해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처방은 바로 해적행위에 사용되는 무기, 선박 및 인원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원 차단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